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2025. 10. 14.
쪽수 4장 / 사진자료 11장

- 배 포 : 2025. 10. 14.
- 제 공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 사업담당 : 최혜경 학예연구사(031-481-7032)
- 홍보담당 : 유채린 학예연구사(031-481-7043)

경기도미술관, 흙으로 크레용 만들어요

- “동그리 공유학교 창작워크숍 결과물 공유전시 《과일-점, 흙-크레용》” 개최
- “어린이 가족이 함께 만든 작품, 경기도미술관 뮤지엄숍 갤러리에서 도민과 만나다”
- “경기도미술관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함께 한 동그리 공유학교 결과물 전시 《과일-점, 흙-크레용》이 경기도미술관 뮤지엄숍 내 갤러리에서 개최
- “과일의 점과 선이 어린이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탄생했어요.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만든 특별한 전시 보러 오세요.”
- “흙으로 만든 크레용은 어떤 색일까요? 안산의 풍경과 색이 참여자들의 손끝에서 작품으로 피어났어요.”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운영한 동그리 공유학교 프로그램 ‘채소 진(Zine) 메이킹’과 ‘안산색 크레용’의 결과물을 모아 《과일-점, 흙-크레용》 전시를 연다. 전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미술관 뮤지엄숍 내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동그리 공유학교’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만든 창작 결과를 도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참여자들은 창작 과정을 통해 지역의 자연과 일상의 소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탐구하였고, 결과물은 전시 작품으로 확장되었다.

‘채소 진(Zine) 메이킹’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워크숍으로, 로컬 채소와 과일을 관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의 변화를 표현해 작은 책(Zine)으로 제작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생태 환경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내는 경험을 했다. 안산 지역의 로컬 채소와 과일을 관찰하여 기후변화로 생겨나는 변화와 병증을 관찰하고, 나만의 방법으

로 표현·상상하며 작은 책(Zine)으로 구성하는 창작 활동으로, 우리 일상의 생태변화를 예술 렌즈를 통해 살펴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융합 교육의 장을 열었다.

‘안산색 크레용’은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으로, 안산 지역에서 채집한 흙으로 직접 크레용을 제작하고 멸종 위기 동물을 표현하는 활동을 펼쳤다. 가족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색을 발견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해 지역성과 감각적 경험을 확장했다. 또한 가족들이 모두 함께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고 이야기 나누고 채집하고 표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전시에서는 완성된 작품 12작품 외에도 제작 과정의 드로잉과 기록도 함께 공개된다. ‘과일’과 ‘흙’이라는 일상적 소재가 점·선과 크레용이라는 예술적 언어로 변주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의 창의적 상상력이 어떻게 시각적 결과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승보 경기도미술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미술관과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해 만든 성과를 도민들과 나누는 자리이다. 지역사회가 함께한 창작 경험이 어린이와 가족을 넘어 지역 전체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 전시 개요

- 기간 : 10.1.(수) - 10.26(일)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 휴관)
- 장소 : 경기도미술관 1층 뮤지엄숍 내 갤러리
- 참여자
 - 채소 진(Zine) 메이킹 : 김라운, 문시연, 박시환, 선한성, 오태희, 함수아
 - 안산색 크레용 : 강주영 가족(강주영, 강민아)
 - 박동우 가족(박동우, 김미영, 박원석)
 - 이지효 가족(이지효, 이시현, 김미영, 이장호)
 - 지예은 가족(지예은, 지예준, 김미리, 지병훈)
- 주최·주관 : 경기도미술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2. 주요 이미지



<채소 진(Zine) 메이킹> 진행 모습



<안산색 크레용> 진행 모습



동그리공유학교 결과물 공유전시 현장 사진

경기도미술관 * 양신교육지원청
동그리 공유학교 창작워크숍 결과물 공유전시
과일-점, 흙-크레용

기획자의 말

경기도미술관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와 연계한 안산 통그리 공유유희 창작워크숍 <안산색 크레용>, <채소 진(Zine) 메이킹> 프로그램은 땅과 농산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을 재야생화(Re-wilding)하는 생태미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은 ‘기술교육과실업(Teaching Artist)’으로 ‘노동사회
이후 평가는 어떻게 자신으로 바꾸고 싶은가’에 대해 예술을 통해 어떤
수업일까?’라는 질문을 갖고 기획한 참여형 생태마포프로젝트 시리즈 중 하나이다.
(간담서대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생활일까?’라는 질문을 갖고 방문
인사이드에 발자국 예술작품이 진행되어 워크숍과도 결합하며 바나(Warna
Banah & Menggambar Binatang)에 친구를 불러주는 친구의 특성을
탐색하며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간담서대 크레용)에 친구를 불러주는 친구의 특성을
인간의 것과 생체로 비교하며 그려져서 감상하고, 10명의 언어인 크레용을 한
인인 야생동물로 그려 그룹을 그려서 생체 크레용으로 풀을 다 그린다.
(제스킨(Zine)에 메이션) 프로그램은 ‘우리는 어떻게 어떤 특성을 함께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탐구한다 (토alking Dots) 프로그램은 참여형
생체마포프로젝트 구성한 것이다. 프로그램에 있어 아이들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어떤 동물인 동물의 특징을, 신, 신의 힘 언어어 기록하고, 예술을 매개로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많은 본디 사할뿐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며 일상을 일구는 공간이며, 농작물은 사람의 필요로 길러져 이전에 스스로 생명을 피우는 식물이다. 본 전시장 통해 안전 지역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오감을 재야생화하며 발견한 흙과 식물 본연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획자 예술교육실천가 공유지

다양한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접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 변화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태로 제한되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을 예술로만 보지 않고 생태환경교육과 사회참여예술을 역할로 활용한다. 다학제 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레이크(Prospek Lake)*의 목적은 예술을 통해 생태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지사 자문기구 *다학제 생태환경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목적은 2023, 2024년, 2025년, 2026년 시위 문화가 예술적 역할은 *'Asking Questions of New-Normals'* *Through Pictures* *How Education Based on the Program & Telling My Story in a Picture Book*: *Art, Education and Sustainability in a Time of Crisis*. (2025, Springer)이다. www.gongnyuji.com

- 1) **해커대학(Hacking University)**
해커대학은 해커들이 해커가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이다. 해커대학은 해커들이 해커가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이다. 해커대학은 해커들이 해커가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이다.
- 2) **클라우드(HackCloud)** 해커대학(HackCloud)은 해커들이 해커가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이다. 해커대학은 해커들이 해커가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이다. 해커대학은 해커들이 해커가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이다.
- 3) **클라우드(HackCloud)** 해커대학(HackCloud)은 해커들이 해커가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이다. 해커대학은 해커들이 해커가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이다. 해커대학은 해커들이 해커가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이다.

경기도미술관 & 안성교육지원청
문그리 공유학교 창작워크숍 결과를 공유전시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과일-점, 흙-크레용

※ 기간: 10.1.(수) - 10.26.(일)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 휴관)

◆ 장소: 경기도미술관 1층 부지임상 내 갤러리
◆ 기간: 2017. 11. 10 ~ 11. 12

◆ 참여자
○ 최은

○ 만산해 크레용: 김주영 가족(김주영, 김민아)

박종우 가곡(박종우, 김이영)

이지효 가족(이지효, 이시원, 김미경, 이필호)
지효의 가족(Y:지효, 지효의, 지효의, 지효의, 지효의)

지혜은 가곡(지혜은, 지혜은, 김미리, 지혜은)
송 가곡-공용지, 경기도미술관

- ◆ 주목주관: 경기도미술관, 안

0000-0001-9300-3000

경기도미술관 경기도교육청

새로운 시선으로 흙과 식물을 관찰해 보세요.

자연물 미술작품처럼 감상하는 눈경에서 우리의 감각은 아성의 아름다움을 더 가까워집니다.

1
혹 관찰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떤 색깔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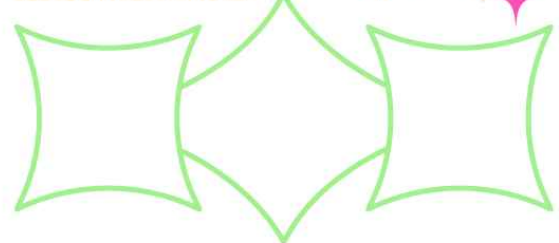
여러 지역에서 재집한 다양한 흙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셨어요?
색깔의 다양성만큼 다재로운 조각들이 보이거든요.
산호의 조각, 조개의 사체, 작은 나무뿌리 파편 등.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흙 속에는 다양한 유기물과 알갱이
조각들이 섞여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관찰했나요?

2
동식물 관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동식물과 함께 살고 있을까요?”

강 밖으로 보이는 화랑유원지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보이나요?
잠시 멈춰 화랑호숫가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호수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까 호수에 잔물결을 일으키고,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끼는 나뭇잎들이 화랑유원지를 물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사는 동식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나요?

관찰한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해 보세요.



《과일-점, 흙-크레용》 리플렛 이미지